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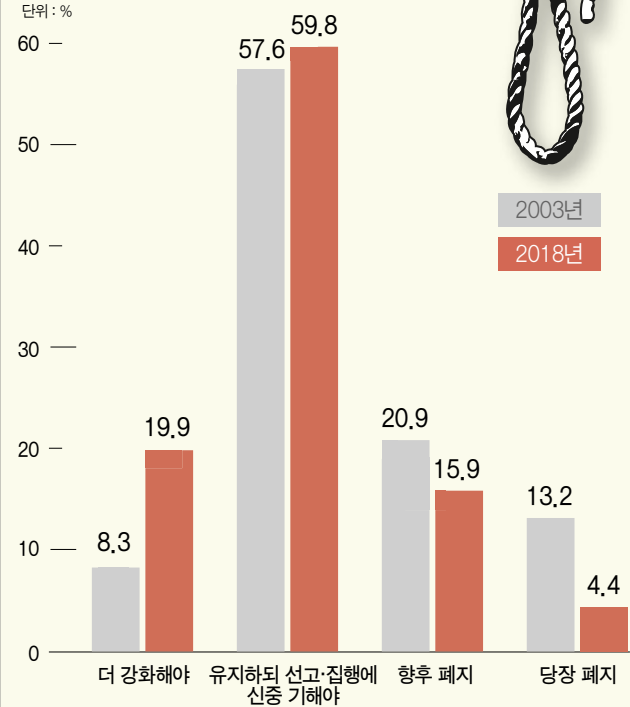
사형제 찬성 의견 늘었다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5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다만 10명 중 7명꼴로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없애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사형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3년 조사 때(8.3%)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19.9%였다.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범죄 증가'(23.5%),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가 꼽혔다.

장예진 기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변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 온라인 설문조사
(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p)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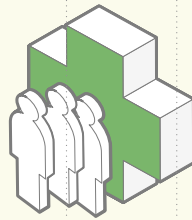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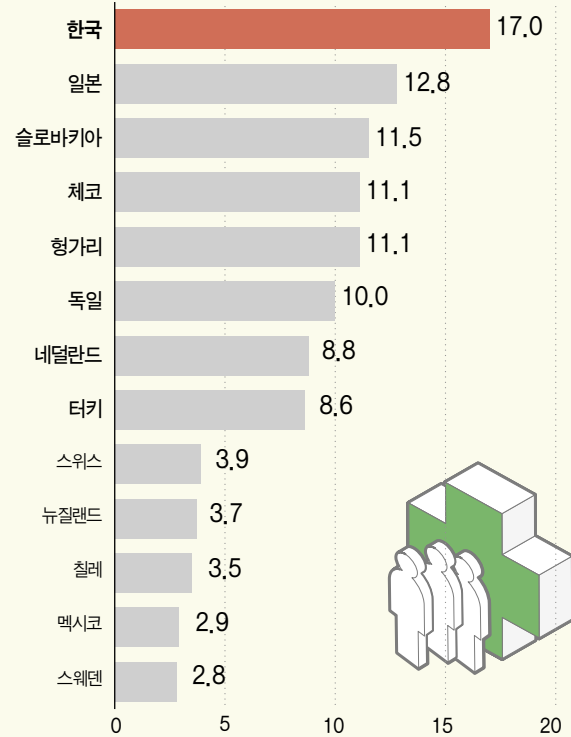


2003년
2018년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OECD 주요국 1인당 병원 진료 횟수

2016년 연간 기준 단위: 회



* 2016년 자료 미제출 국가는 최근 자료로 대체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인 병원에 가장 많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외래진료 횟수는 2016년 기준 연간 17.0회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잦았다. 한국 다음인 일본은 12.8회였고, OECD 평균은 6.9회에 그쳤다. 한국인은 치과 외래진료도 가장 자주 받았다. 국민 1인당 치과 외래진료 횟수에서 한국은 연간 3.2회로 일본(3.2회)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한국인의 재원 기간 역시 최상위권이었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8.1일로 일본(28.5일) 다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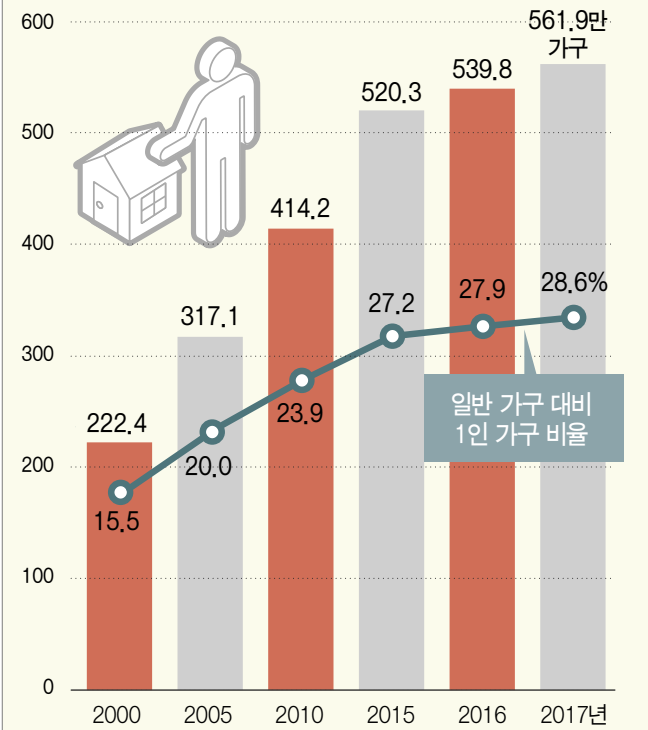
김토일 기자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562만 명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 가구는 562만 명으로, 2000년(222만) 대비 152.6% 늘었다. 외국인 가구, 군부대 거주자, 교도소 수용자 등을 제외한 일반 가구 중 27.2%가 1인 가구라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살림살이 형태가 됐다. 2인 가구 비율이 26.7%로 그 뒤를 이었다. 1인 가구는 2000년 일반 가구 중 15.5%였는데 2015년에 27.2%를 기록하며 가장 주된 가구가 됐다.

김토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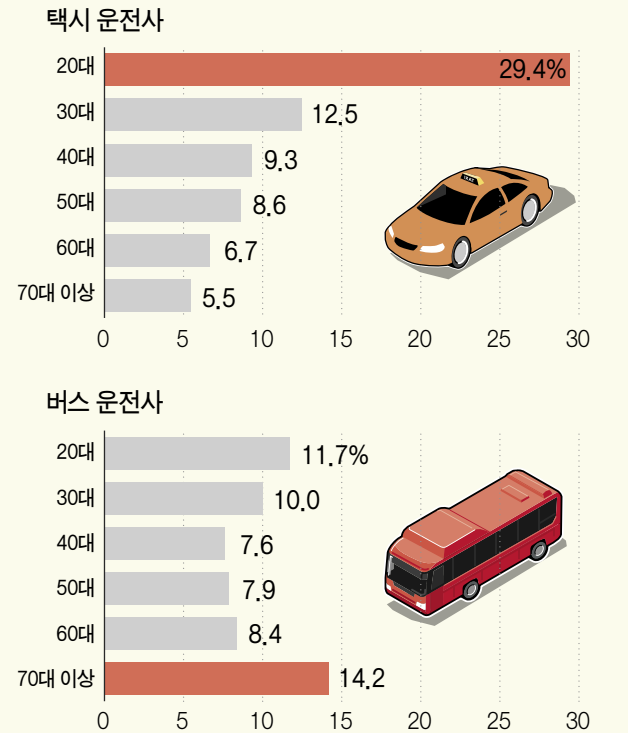
1인 가구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사업용 차량 운전자 연령별 사고율

2017년 기준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대 택시·70대 버스' 운전자 사고 잦다

택시는 20대, 버스는 70대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7년도 사업용 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20대 운전기사 사고율이 29.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70대 이상 기사 사고율은 5.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 중에는 70대 이상 기사 사고율이 14.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20대(11.7%), 30대(10.0%)의 사고율이 이었다.

김토일 기자